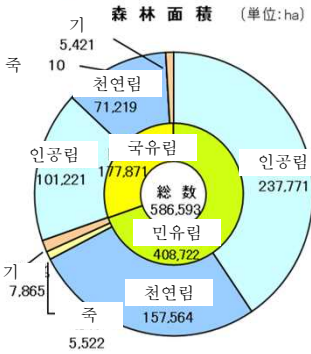




미야자키현 삼림·목재산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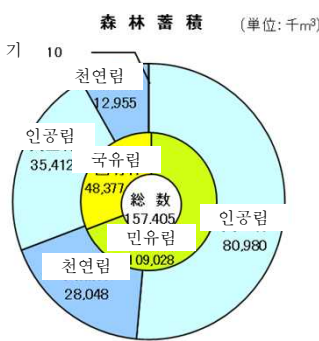
(2016년도판)

① 삼림면적(전국 13위 2.4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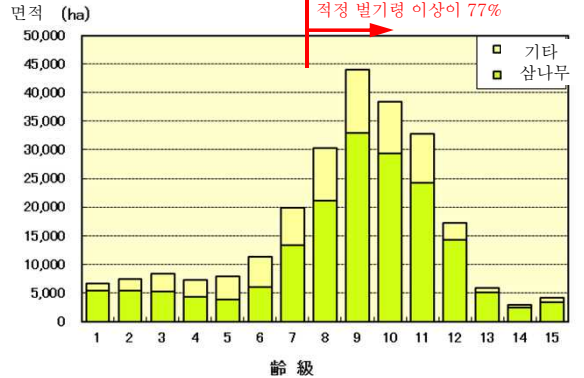
- 현 면적 77만 ha의 76% (59만 ha)가 삼림
그중 민유림이 41만 ha로 전체 삼림의 70%
- 적극적인 확대조립으로 인공림은 34만 ha,
전체 삼림의 58%

② 삼림축적(전국 7위 3.2%)



- 삼림축적량은 약 1억 5,740만 m³
(1ha당 축적량은 268m³/ha)
- 삼림의 연간 성장량은 358만 m³/년
(그중 삼나무가 221만 m³/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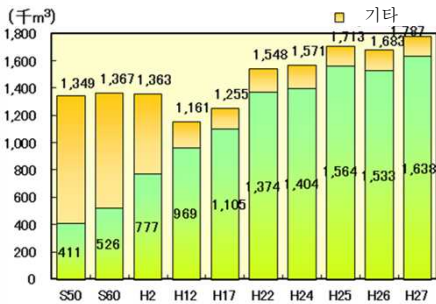
③ 인공림 영급별 면적(민유림)



- 민유인공림의 72%가 삼나무
- 삼나무 인공재 중 8영급(36~40년생) 이상이 77%

미야자키현 삼림의 상당 부분 이용가능

④ 소재 생산량



- 소재 생산량 중 삼나무 차지 비율 약 91%
- 2020년 목표: 190만 m³

⑤ 고성능 임업기계 보유현황(전국 2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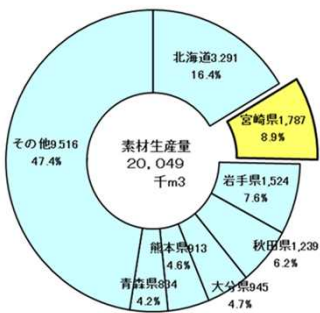
순위	2010년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
1	홋카이도 610	홋카이도 656	홋카이도 811	홋카이도 826
2	미야자키 359	미야자키 382	미야자키 432	미야자키 443
3	고치 292	고치 306	고치 333	고치 340
4	구마코토 215	구마코토 229	구마코토 259	나가노 277

⑥ 임내도로망 현황(전국 1위)

순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
1	미야자키 36.5	미야자키 36.8	미야자키 37.3	미야자키 37.7
2	사가 30.4	구마모토 32.2	구마모토 32.9	구마모토 33.8
3	가고시마 29.9	사가 31.0	사가 31.9	사가 33.3

효율적인 소재 생산 가능

⑦ 소재 생산량(전국 2위 8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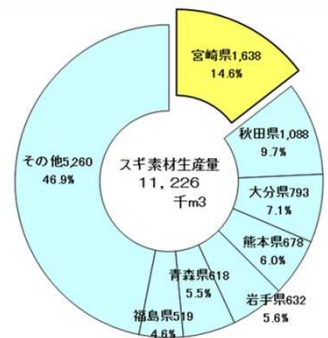
- 본 현의 삼나무소재 생산량은
1991년 이후, 25년 연속 전국 1위

- 2015년 삼나무소재 생산량 (164만 m³)은
전국 생산량의 15%에 해당
삼나무 연간 성장률의 74% (164/221) 소비
(전국 평균 약 23%)

- 남부 규슈 4개 현의 삼나무소재 생산량
(355만 m³)은 전국 생산량의 32%에 해당

※ 홋카이도의 삼림면적은 554만 ha로
미야자키의 10배에 달하지만, 생산량은
2배에 불과.

⑧ 삼나무소재 생산량(전국 1위 14.6%)



⑨ 제재공장 규모(한 공장당)

연도	출력수	원목 소비량	종업원 수
전국	125kw	3,095m³	5.6명
미야자키	317kw	9,651m³	11.9명

전국에 비해 본 현의 제재공장은
대형화·근대화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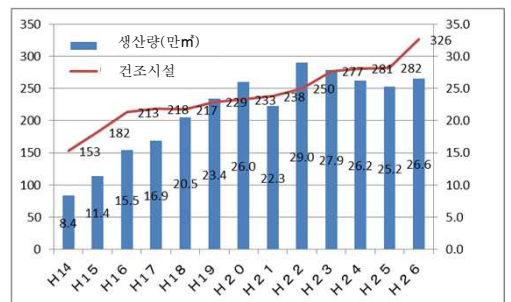
⑩ 출하처별 출하량

연도	총 출하량 (만m³)	현내	현외 내역					
			수도권	주요	간사이	규슈	2키나이	기타
2014	71	24.1	3.5	2.6	4.9	28	4.4	3.5
구성비 (%)	100	33.9	4.9	3.7	6.9	39.5	6.2	4.9

- 제재품의 약 66%를 현외로 출하
- 2020년 목표(현외 출하량): 60.5만 m³

인공 건조재 공급 37% (26.6/71.0)
(전국 평균 약 21%)

⑪ 건축용 건조재 생산량·건조시설 (삼나무 건조재 출하 전국 1위)



○ 2020년 목표: 48만 m³